

말로리(Thomas Malory)의 “개러쓰의 이야기” (the Tale of Gareth)의 사회적 의미: 사회적 신분, 사랑과 결혼,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 동 춘
대구대학교

이름이 무엇이며, 어떤 가문의 태생인가를 찾아가는 이른바 주인공의 ‘정체성의 확인 혹은 회복 과정’(affirmation or discovery of identity)은 중세 로맨스의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보편적인 플롯이다. 특히 기사 이야기의 소재로 삼고 있는 로맨스에서 익명의(incognito) 기사가 자신의 신분을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은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하다. 해닝(Robert Hanning)의 주장처럼 기사도의 로맨스에서 정체성이란 처음부터 이미 “주어진 것(given)이며, 과정(process)이며, 목표(goal)”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해닝의 표현에 따르면, 로맨스에서 정체성이란 “과거요, 현재이며, 미래”에 해당한다(11). 이런 점에서 중세 로맨스에서 정체성이란 이야기의 핵심을 넘어 전체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듯싶다. 여기에 이미 많은 비평가들이 지적하고 있다시피, 로맨스에서 기사의 정체성이 최종적으로 확인 혹은 확립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기사가 기사들의 공동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Mann 331-39). 예

* 본 논문은 2014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짐.

를 들어, 아서 왕의 원탁의 기사 중심이 카멜롯(Camelot)이라면 이곳이 이른바 중심이며, 로맨스의 주인공인 기사가 자신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최종 귀착점이기도 하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주인공의 정체성 회복은 가장자리(margins)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합법적으로 중심에 포함되기 위해서 기사에게는 기본적으로 귀족으로서 신분(혈통)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기사에 어울리는 가치와 덕목들이 검증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인공이 작품의 시작부분에서 중심에서 배제 혹은 분리되는 이유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신분을 감추는데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자신의 혈통을 알지 못하는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처럼 중심으로부터 배제된 기사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마지막에서 공동체에 포함되는 과정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세 로맨스의 유형이 보통 “Fair Unknown”이라 볼 수 있다(Wittig 173-78).

말로리(Thomas Malory)의 “개러쓰의 이야기”(Tale of Gareth) 역시 위티그가 분류하고 있는 유형에 속하는 작품이다. 그 가운데서도 말로리의 작품은 유형(Type) 1과는 달리 주인공이 자신의 신분(혈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신분을 감추는 유형 2에 속한다. 다시 말해서, 개러쓰는 대대로 자신에게 부여된 귀족의 혈통과 이름에서 벗어던지고 자신의 신분을 감춤으로서 스스로 공동체의 이방인이기를 선택한다. 결국 개러쓰는 타고난 신분에 따라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는 카멜롯의 원탁의 기사라는 공동체의 중심을 벗어나 스스로 가장자리에 위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분적으로 가장 낮은 부엌데기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능력과 덕행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카멜롯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정을 받는 동시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개러쓰의 이야기”는 개러쓰가 상실했던 신분(혈통), 즉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보다는 그의 노력과 행동을 통하여 타고난 신분을 재확인해가는 과정인 셈이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 개러쓰의 성공과 승리가 그의 신분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귀족으로서 그의 신분을 재확인시켜주며, 대중들 앞에서 이를 인정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개러쓰가 자신의 신분을 재확인해가며 귀족 신분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가는 기본적인 과정은 물론 말로리 이전의 로맨스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개러쓰의 이야기”가 말로리의 순수한 창작이라고 보는 학자는 드물다. 오히려 작품의 원전에 대한 학자들 사이의 서로 다른 여러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가 알고 있던 익숙한 몇 개의 원전들을 바탕으로 말로리가 작품을 새롭게 썼다는 벤슨(Larry Benson)의 주장이 오늘날 더욱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97-8). 그 이유는 주인공이 기사도의 공동체에서 배제 혹은 분리되어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에 합법적으로 포함되는 기본적인 내용과 패턴은 말로리 이전의 로맨스에서 흔히 관찰되는 것이나, 말로리 작품에 사용되고 있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과 말로리만의 독특한 구조를 살펴보면 벤슨의 주장이 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개러쓰의 이야기”에서 말로리는 원전이라 여겨지는 『리비오스 디스코너스』(*Lybeaus Desconus*), 『이포메돈』(*Ipomedon*), 『트리스탄』(*Tristan*)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내용으로 작품 내내 ‘귀족 신분(혈통)’(nobility)을 강조하고 있다(Mahoney 168). “Fair Unknown”과 관련 로맨스의 중심에는 항상 이른바 ‘귀족신분’으로의 발전(성장)에 대한 독자의 심리적 욕망이나 바람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말로리가 작품에서 귀족의 혈통과 신분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단순히 말로리 이전 혹은 이후 대중적 로맨스의 반영된 수준을 훨씬 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원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말로리의 작품에 나타나는 전통적 민담의 구조나 스타일의 반복, 그리고 이를 통하여 그가 독자에게 기대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작품에서 귀족 혈통과 가문에 대한 말로리의 집착과 강조는 여타 로맨스의 전통을 이어받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말로리만의 독특한 것으로서 말로리는 자신이 잘 알고 있던 당시 귀족 계층, 결혼과 사랑과 관련한 당시 이상적인 가치와 의미를 개러쓰에게 부여함으로써 작품에 진정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중세 후기 대중적 로맨스처럼 말로리의 작품에 역시 화자나 독자의 마음 속 욕망과 소망이 작품에 내재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말로리의 작품을 사회,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작품에서 말로리가 강조하고 있는 귀족 계층과 작품에 투영되어 있는 사랑과 결혼을 당시 사회, 정치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작가로서 자신의 입장은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작품에 사용하고 있는 말로리만의 독특한 구조적 장치를 먼저 분석하고자 한다.

I. 말로리 작품의 구조 및 의도(효과)

말로리의 작품은 앞서 언급한 원전들을 토대로 쓰였기에 그의 순수한 창작이라고 볼 수 없으나 일부 내용, 스타일 그리고 구조면에서는 그만의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특히 말로리의 작품에는 민담의 전통적인 구조와 스타일이 드러난다. 민담학자 톰슨(Stith Thompson)이나 러시아의 구조학자인 프롭(Vladimir Propp)의 구조적인 분석들에 말로리의 작품이 그대로 들어맞고 있다. 매우 간단한 예로서 말로리 작품에서 시작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주인공 개러쓰가 겪게 되는 과정은 민담의 주인공들이 겪게 되는 전형적인 과정과 다를 바가 없다. 말로리의 주인공 개러쓰가 카멜롯의 공동체에서 분리 혹은 배제되어 여러 시련과 곤란을 겪다 자신의 능력과 주위 초자연적 존재들의 도움을 통하여 다시 공동체에 포함됨과 동시에 결혼으로 행복한 결말을 맺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패턴은 민담 속 주인공이 겪게 되는 보편적인 과정과 차이가 없다. 특히 시작부분에서 홀대받고 공동체에서 배제된 주인공이 마지막 부분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정을 받으며 공동체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는 구조는 민담의 기본이며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서 개러쓰는 (남성)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남성 신데렐라의 전형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Fair Unknown” 유형에 속하는 대부분의 로맨스 속 주인공들은 대체로 개러쓰처럼 남성 신데렐라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행동과 태도는 단순히 기사 한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넘어 기사 집단 전체 혹은 독자와 화자를 포함한 우리 인간의 소망과 바람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보잘것없는 존재에서 영웅으로 발돋움하는 주인공의 발전 패턴과 그의 행동과 태도를 포함한 작품의 내용 사이의 적절한 관계를 통하여 말로리의 작품은 독자와 화자의 내면의 욕망내지 환상(fantasy)을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민담의 구조와 패턴을 아우르고 있는 말로리의 작품은 헝크스(Thomas Hanks)의 말처럼 “역사의 테두리를 넘어서 우리 인간에 대한 진리를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61) 다시 말해서, 로맨스 못지않게 민담 역시 인간 내면의 바람이나 소망을 물론 이상적이며 보편적인 인간의 사고 및 의식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로맨스처럼 민담의 구조와 내용 역시 독자의 보편적인 의식과 바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에게 궁극적으로는 심리적인 안정과 편안함을 부여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말로리가 앞서 언급한 원전들을 토대로 “개러쓰의 이야기”를 쓴 것은 사실이나, 말로리 작품의 기본적인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민담의 구조적인 패턴은 작가로서 그만의 독창성을 말해준다. 민담의 이 같은 패턴을 통하여 말로리는 독자에게 작품의 시작부분에서 개러쓰와 관련한 기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작품이 진행되는 동안 기대가 서서히 실현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작품의 마지막에 이르러 독자를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정과 편안함으로 이끈다.

그러나 작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민담의 기본적인 내용과 패턴을 넘어 말로리는 작품 곳곳에 변화와 강조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개러쓰의 타고난 ‘귀족신분(혈통)’이다. 처음 대면한 개러쓰에게 아서는 존경스런 태도로 말을 건넨다.¹ 낯선 한 촌뜨기를 향하여 아서가 하는 말투는 그의 촌스러운 외모로는 덮을 수 없는 뭔가 고귀한 귀족의 분위기가 개러쓰에게서 느껴진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개러쓰의 타고난 귀족의 본질은 외모만으로 인물을 평가하는 케이(Kay)에 의해 무시를 당하나 아서와 같은 또 다른 인물, 즉 랜슬롯(Lancelot)에 의해 다시 한 번 인정된다(295. 11-12). 이어서 작품의 화자 자신 스스로 가웨인(Gawain)의 마음이 개러쓰에게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확신시키며, 이는 본능적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까지 말한다(295. 33). 아서와 랜슬롯이 개러쓰에게 사용하는 “존경”(worshyp)과 가웨인의 “혈통”(bloode)는 외모와는 관계없이 개러쓰가 귀족의 신분(혈통)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귀족의 면모 역시 그의 외모에 감추어져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개러쓰의 본질을 파악한 독자는 개러쓰가 단순히 혈통에 따른 귀족신분을 넘어 행동과 태도로서 진정한 귀족임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지니게 된다. 독자의 이와 같은 기대는 개러쓰 자신이 랜슬롯에게 자신의 이름과 가문을 말하는 장면(299. 27-8)에서 보다 더 확고하게 된다.

이야기 시작에서 미약하고 보잘것없던 개러쓰가 가웨인이나 랜슬롯을 능가하는 기사로 발전할 것이라는 독자들의 기대는 개러쓰의 모험의 과정에서 현실화된다. 개러쓰는 케이를 시작으로 검은 색의 기사, 녹색의 기사를 비롯하여 궁극적으

¹ *Le Morte Darthur*, 294. 18-20 in Sir Thomas Malory, *The Works*, ed. Eugene Vinaver, rev. P.J.C Field, 3rd ed., 3 vols. (Oxford: Clarendon P, 1990). 본 논문에 언급되는 말로리 작품의 인용은 유진 비나버의 판본에 의함.

로 붉은 색 기사에 이르기 까지 자신에게 대적하는 상대들을 하나씩 물리치며 목적을 향하여 나가게 된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그가 제거하는 상대의 힘이 점점 더 강하고 신분 또한 높아져 간다는 사실이다. 주인공이 제거해나가는 상대의 힘과 신분이 점차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이들 상대들을 주인공이 무난하게 제거해나가는 구조는 기사관련 로맨스나 민담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구조에 해당한다. 주인공이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도중 경험하게 되는 시련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강해지고 어려워지기 마련인데, 이는 주인공이 조금씩 성숙되어가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다. 마찬가지로 개러쓰가 스펙트럼처럼 다양한 색깔의 기사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과정은 기사로서의 능력은 물론 귀족으로서 그가 발전,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Wheeler 183-4).

아울러 독자는 다양한 종류의 기사들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개러쓰가 보여주는 반복적인 행동과 성숙(발전) 과정을 통하여 개러쓰의 신분과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며 그의 능력에 대한 확신 또한 점점 강화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처럼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정도가 점점 높아지는 현상은 매우 체계적이며 틀에 박혀 있어 독자 누구나 하나의 과정이 끝나면 또 하나의 과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개러쓰가 실패하거나 도중에 그만둘 것이라고 믿는 독자 역시 없게 된다. 매호니(Dhira Mahoney)의 말처럼 일련의 과정은 마치 춤의 연속동작처럼 이어져 춤을 지켜보는 사람을 체면에 걸린 것처럼 춤 속으로 끌어들이게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175). 목표를 향하여 가는 도중 개러쓰가 경험하게 되는 비슷한 에피소드의 반복과 정도의 강화 외에 말로리는 자신의 의도하는 방향으로 독자의 관심과 생각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매우 정형화된 패턴의 대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개러쓰가 다양한 색깔의 기사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리넷(Lynet)과 개러쓰가 주고받는 대화는 기사들의 색깔이 보여주는 정형화된 패턴이나 에피소드의 반복의 효과를 보다 더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리넷의 비하적인 언어의 반복이 독자로 하여금 개러쓰의 능력과 '귀족혈통'을 의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더욱 더 상향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몇 차례에 걸친 리넷의 모욕에 가까운 발언에도 굴하지 않고 적들과 대면하여 이들을 물리칠뿐더러 그녀가 욕설을 퍼부을 때마다 항상 정중하게 대하는 개러쓰의 태도와 모습은 그 안에 귀족의 본질이 내제되어 있음을 입증해주기에 충분하다.

이외에도 말로리만의 또 다른 독창성은 작품의 마지막 토너먼트 장면에서 나타난다. 몇 차례 토너먼트의 과정을 통하여 말로리는 비슷한 장면, 내용, 그리고 언어까지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심하지 않고 독자가 개러쓰의 능력과 그의 신분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도록 만든다. 비슷한 에피소드, 색깔 그리고 언어 등의 정형화된 반복과 정도의 증폭 외에 말로리는 독자의 기대와 확신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민담 등에서 볼 수 있는 매우 익숙한 요소들을 동원하고 있다. 말로리의 이야기에서 개러쓰는 리오네스(Lyonesse)로부터 자신의 형체를 위장시킬 수 있는 반지를 받는데(345. 14-23), 민담이나 로맨스에서 반지는 마법을 지닌 가장 대표적인 물체에 해당한다. 그녀가 하면, 난쟁이 역시 독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등장인물로서 반지 못지않게 독자들의 생각과 기대를 말로리가 의도한 방향으로 이끌기에 충분하다. 난쟁이는 작품에서 개러쓰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개러쓰의 말을 붙잡고 다니는 보조적인 역할에서부터 개러쓰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개러쓰에게 반지를 빼앗아감으로 인하여 개러쓰의 정체성은 물론 개러쓰의 명예와 명성 역시 자연스럽게 카멜롯의 구성원들에게 드러나 보이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 바로 난쟁이이다.² 말로리의 난쟁이는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 나타나 주인공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을 주는 전 방위적이며 감초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언급한 작품의 기본적인 패턴과 과정 외에, 마법 역시 독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으로서 독자들의 심리를 편안하고 안정되게 이끄는 또 다른 요소에 해당한다. “개러쓰의 이야기”에는 네 차례에 걸쳐 마법과 관련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다. 붉은 영토의 붉은 기사가 마법에 의해 힘을 발휘하는 시간이 언급되어 있는가 하면(321.1-3), 리오네스의 오빠가 아발론(Avalon)이라는 마법의 섬에 살고 있으며 그곳을 그녀가 방문한다는 내용을 독자들은 또한 접하게 된다(342. 8-10). 이외에도 앞서 언급했다시피 반지에 마법에 힘이 실려 리오네스로부터 반지를 받은 개러쓰가 카멜롯의 기사들과 토너먼트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체를 감추게 된다. 그러나 마법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마법의 힘을 지닌

² 말로리의 작품에 나오는 난쟁이는 켈트족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워드르는 주장한다: Vernon J. Harward Jr., in *The Dwarfs of Arthurian Romance and Celtic Tradition* (Leiden: Brill, 1958) 참고.

기사가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개러쓰와 리오네스가 함께 하는 잠자리에 나타나는 장면이다(333. 24-34). 본 논문의 후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내용으로, 이는 독자들에게 익숙한 마법의 요소와 반복을 통하여 말로리가 의도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

위티그(Susan Wittig)의 주장처럼 로맨스를 비롯한 문학작품에서의 반복적이며 정형화된 패턴과 정도의 증진은 독자들에게 일종의 체면효과를 가져다주어 독자로 하여금 화자가 의도하는 바로 이끌어가기 위한 수단이다(125-6). 위티그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도날슨(Talbot Donaldson) 역시 상투적이며 수사학적인 반복적 표현들 역시 비슷한 효과를 유발시킨다고 말한다(1104). 최면에 걸린 듯이 독자는 이야기 내용과 구성의 반복으로 인하여 화자가 의도하는 바를 의심 없이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된다. 한마디로 ‘반복,’ ‘정도의 증진’을 비롯한 ‘정형화된 구조와 패턴’은 강력하면서도 미묘하며 설득력을 지닌 로맨스의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복과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개러쓰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로리가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독자가 수용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기사도의 꽃으로서 개러쓰의 모습일 것이다. 단순히 대대로 내려오는 귀족신분이라는 것 하나로 기사가 되기보다는 기사의 덕목들을 몸소 실천하는 기사야말로 진정한 기사임을 말로리는 독자가 수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중세 후반 영국 기사들의 타락한 현실을 감안할 때, 말로리는 당시 독자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기사도의 상(象)을 작품에 투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상적인 기사로서 개러쓰의 모습에 진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말로리는 개러쓰의 행동과 태도에 당시 사회의 관습을 부여하고 있다. 작품에서 개러쓰는 귀족혈통의 기사로서 한 여인을 사랑하여 궁극적으로는 결혼에 이르는 당시 귀족 남성에게 해당한다. 일차적으로 이상적인 기사의 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품에서 말로리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말로리가 묘사하고 있는 이상적인 기사인 개러쓰에게 항상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있다면 그것은 ‘귀족혈통’이다. 기본적으로 기사란 귀족출신만이 가능하며 귀족신분은 타고나는 것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로리는 이야기 내내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귀족신분이란 대대로 세습되어 오는 것이나 개개인의 노력과 덕행을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귀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에피소드의 내용 및 정형화된 구조와 패턴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법을 통하여 말로리

가 「개러쓰의 이야기」에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하는 또 다른 내용은 당시 사회적 제도와 관습에 따른 귀족의 사랑과 결혼에 관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러쓰와 리오네스의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해프닝, 그리고 반복적인 패턴의 토너먼트를 통하여 말로리는 사랑과 결혼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자연스럽게 독자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II. 사회적 신분

말로리 작품에서 사회적 신분은 주인공 개러쓰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단어에 해당한다. 다른 ‘Fair Unknown’ 계열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말로리의 작품 역시 주인공이 타고난 귀족혈통을 회복하고 재확인해가는 과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오히려 말로리의 작품과 유사한 여타 다른 작품들에 비하여 “개러쓰의 이야기”는 작품의 시작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신분, 즉 개러쓰의 귀족혈통이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작품의 시작부분에서 개러쓰의 타고난 귀족혈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려는 말로리의 의도에 따라 개러쓰는 신분적으로 매우 천한 부역의 잡일들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해블록(Havelok)의 몸에 새겨져 있는 점(birthmark)이 아무리 감추려고 노력한다하여도 지워지지 않고 그 빛을 발하듯이, 개러쓰의 깨끗한 손과 아름다운 면모 그 자체만으로도 아서 왕은 물론 작품의 독자들 역시 그가 귀족혈통의 자제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개러쓰가 케이 경(Sir Kay) 경의 인신 모독을 받아가며 부역데기로 전락하는 것은 로맨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인공의 일시적 상태의 변화에 불과하다. 이는 주인공의 혈통을 보다 코믹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독자들에게 부각시키려는 작가에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진행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개러쓰가 귀족혈통의 자제임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마지막에서 마치 방점이라도 찍듯이 말로리는 개러쓰의 어머니를 등장시켜 개러쓰의 귀족혈통을 재확인시켜준다.

작품의 시작과 마지막 부분은 물론 이야기 속 ‘반복과 발전’이라는 구조적 특징을 통하여 이처럼 개러쓰의 귀족혈통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이상적 기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회적 신분을 강조

하고 이에 대한 독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말로리의 의도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귀족혈통의 자제만이 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말로리의 개인적 생각이 기보다는 당시 기사들의 교본이라 할 수 있는 레이먼 넬(Ramon Lull)의 『기사 계급을 위한 서(書)』(*The Book of the Ordre of Chyvalry*)나 제프리 드 샬니(Geoffroi de Charney)는 『기사도에 관한 서(書)』(*The Book of Chivalry*)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보편적인 사실이다. 이 같은 일반적인 사실에 대하여 말로리는 『아서 왕의 죽음』의 시작부분부터 확실히 밝히고 있다. 작품의 시작부분에 해당하는 「토르와 펠리노르」(Torre and Pellinor)에서 개러쓰처럼 토르 역시 우여곡절 속에 그가 귀족의 자손임이 밝혀지며 아서 왕에 의해 기사가 된다. 토르 또한 귀족혈통의 자제가 아니었다면 아무리 그의 능력과 자질이 출중하더라도 기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말로리는 “개러쓰의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개러쓰 또한 자신이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귀족혈통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보인다. 원탁의 기사들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이 귀족혈통임을 발설하지 않던 개러쓰가 오직 랜슬롯에게는 이를 말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사의 신분이 필수적이며,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분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토르나 펠리노르」의 이야기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기사로서의 이상적인 덕목들을 차치하고라도 일단 기사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타고난 귀족혈통임을 말로리는 개러쓰의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러쓰가 보여주는 행동과 태도를 말로리는 항상 그의 타고난 귀족혈통과 연관시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마치 그가 귀족혈통의 자제가 아니었다면 기사로서의 이상적인 행동과 태도 역시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도 개러쓰의 귀족혈통에 대한 말로리의 강조는 지나칠 정도이다.

작품의 시작부분부터 개러쓰를 부엌데기로 등장시키는 것부터 작품 속 리넷의 말과 행동은 이야기 속에서 개러쓰의 귀족신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작품의 시작에서 케이 경의 말만 믿고 리넷은 개러쓰의 저급한 신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평을 한다(300: 13-14). 개러쓰가 입고 있는 냄새나는 옷과 저급하게 보이는 외모는 작품의 시작부분에서 그녀의 지속적인 불평거리가 된다. 것처럼 저급한 신분의 사람이 고귀한 귀족 신분의 기사들을 단숨에 물

리치는 모습을 본 리넷이 깜짝 놀라며 경탄하는 것 역시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302: 12-13, 308: 11-13). 신분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있는 기사와 부엌데기의 대비, 그리고 둘 사이 역할이 전도되는 현상은 리넷에 놀라움을 넘어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기사가 부엌데기에게 복종하게 되는 현상은 일상적인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며, 기사도의 규범에도 어긋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부엌데기로만 알았던 개러쓰가 귀족혈통을 지닌 다양한 기사들을 하나하나 물리치는 모습을 보고 리넷이 놀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기대치 않은 개러쓰의 모습에 대하여 리넷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몇 차례에 걸쳐 비슷한 반응과 태도를 보인다. 특히 리넷의 반응의 정도 또한 개러쓰가 보다 더 강하고 상대하기 어려운 기사를 물리침에 따라 더욱 더 증폭되는 경향을 보인다(303: 14-15, 304: 9). 개러쓰의 신분과 관련하여 리넷이 보여주는 반복과 강조는 개러쓰의 타고난 혈통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코믹함을 부여하는 동시에 기사로서 귀족혈통의 중요성과 이를 재확인케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개러쓰의 행동에 대한 리넷의 수사학적 반응은 한편으로는 그의 사회적 신분에 조롱을 가하기 위한 것인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진정한 신분에 대하여 리넷이 의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리넷 외에 개러쓰가 귀족혈통임을 확인시켜주는 또 다른 등장인물은 다름 아닌 그가 대적하게 되는 상대 기사들이다. 녹색의 기사인 경우, 개러쓰와 대적한 후, 그를 자신의 거처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한다. 개러쓰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리넷을 힐책하며 녹색의 기사는 개러쓰의 귀족혈통을 강조한다(307: 17-23). 녹색의 기사를 비롯하여 붉은 색의 기사까지 제압해나가자, 리넷은 개러쓰의 신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가 제압한 기사들이 입증한 바 개러쓰의 귀족혈통을 인정하게 된다.

리넷이 기사로서 개러쓰의 됴됨이와 귀족혈통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말투에서 드러난다. 이야기의 처음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 리넷은 개러쓰를 ‘thou’라는 대명사로 지칭함으로써, 신분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개러쓰를 그리 대단치 않는 존재로 그녀가 여기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개러쓰의 신분과 능력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듯 보이는 말조차도 리넷은 서슴지 않고 내뱉는다. 그러나 리넷의 이 같은 태도는 그녀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개러쓰가 제압한 기사들이 경험한 바에 의해 서서히 변해간다. 그녀는 더 이상 개러쓰를

‘thou’가 아닌 ‘you’로 지칭함으로써 그에게 대한 존경을 표출하기 시작한다(312: 10-12). 뿐만 아니라, 리넷은 개러쓰가 귀족혈통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를 부정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책망까지 한다(312: 29-33, 313: 13-14). 그러나 리넷의 말과 행동이 개러쓰의 신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변화나 개선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개러쓰의 신분은 타고난 것으로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그의 귀족신분은 지속되고 있을 뿐이다. 다만 독자들에게 말로리는 리넷을 포함하여 개러쓰가 대적인 기사들을 통하여 이상적인 기사의 기본 조건으로써 개러쓰가 갖추고 있는 귀족신분을 재차 강조하고 확인시켜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말로리는 단순히 귀족혈통만이 이상적 기사의 조건이 아님을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개러쓰가 여정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귀족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귀족혈통의 자손으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로리는 당시 기사도의 가치와 이상이 어느 정도 쇠퇴하고 타락하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작가가 아니었나 싶다. 「토르와 펠리노르」의 마지막 부분에 당시 기사들이 지켜야 할 의무들을 말로리는 간결하게나마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의 핵심은 캐멀롯의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아서 왕의 기사들이 왕과 동료 앞에 맹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핵심은 기사란 본분에 맞게 정당한 대의명분을 위해 사심 없이 싸워야 하며, 자신의 힘을 남용해서 범법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아무리 상대가 적일지라도 상대가 요청한다면 적에게조차도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기사란 노약자와 아녀자를 보호할 줄 알아야 할뿐더러 여성들에게 예의바른 태도를 보여야 할 의무를 지녀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말로리의 작품 어디에도 이와 같은 덕목을 온전히 실천하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작품 속 이상적인 기사라 할 수 있는 랜슬롯, 트리스탄(Tristan), 그리고 가웨인 역시 이런 점에서 온전치 못한 셈이다. 오직 개러쓰만이 이러한 덕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로리가 제시하는 이상적 기사의 역할 모델이 아닌가 싶다(Knight 119-220).

초서의 「바쓰의 여장부 이야기」 속 노파의 설교에서도 잘 드러나 있듯이, 말로리에게 진정한 기사란 혈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혈통에 버금가는 “귀족다운 행동과 태도”(jantylnesse)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개러쓰는 보여주고 있다. 귀족혈통과 더불어 개러쓰의 “귀족다운 행동과 태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개

러쓰는 여타 ‘Fair Unknown’ 부류의 작품 속 주인공들과는 달리 자신의 신분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를 속이고 있다. 벤슨(David Benson)의 지적대로, 개러쓰의 여정은 자신의 이름에 자동적으로 따라붙은 귀족혈통을 행동과 태도를 통하여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102). 또한 개러쓰는 아서 왕의 조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사가 되기를 원치 않았는지도 모른다(Kennedy 132). 귀족혈통의 특권을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몇몇하게 कै뎀탈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려는 개러쓰의 모습, 다시 말해서 그의 기사도적 덕목들이 그의 여정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작품 속에서 개러쓰는 무엇보다 약자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진정한 기사임에 틀림이 없다. 리오네스 뿐만 아니라 작품에 등장하는 난쟁이 역시 약자를 보호할 줄 아는 개러쓰의 기사다운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사회적 약자인 리오네스와 마찬가지로 작품에서 난쟁이 또한 개러쓰에게서 기사다운 행동을 이끌어내는 촉매 구실을 하고 있다(Armstrong 120). 뿐만 아니라, 리넷이 말과 행동으로 개러쓰에게 가하는 모욕에도 불구하고 여성, 특히 약자에 대한 기사로서 그의 예의바른 태도(courtesy)는 중세 로맨스 작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일 때까지 느껴진다. 그런가 하면, 개러쓰의 ‘기사다움’은 그가 제압한 기사들에 대한 그의 배려에서도 나타난다. 개러쓰는 상대가 적일지라도 적에게조차도 자비를 베풀 줄 알뿐만 아니라 적의 초대에 응하여 환대를 받을 정도로 기사들 사이의 신뢰와 화해를 중요시여기는 이상적인 기사임에 틀림이 없다.

단순히 귀족혈통을 지닌 기사로서가 아니라 기사로서의 덕목을 고루 갖춘 이상적 기사로서 개러쓰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말로리는 개러쓰를 아이언사이드 경(Sir Ironside)과 대비를 시키고 있다. 아이언사이드 역시 개러쓰와 마찬가지로 귀족혈통을 지닌 기사이나, 개러쓰와는 달리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 그에게는 “귀족다움”(jantyll)이 없다고 말로리는 단언하고 있다(318: 23-26, 320: 17-19). 뿐만 아니라, 힘이나 재력에 있어서 아이언사이드가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으나(320: 18-19), 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 데 그것은 바로 기사로서 “예의 바름”으로, 이 점 역시 개러쓰와 아이언사이드를 구분 짓는 요소이다. 이외에도, 개러쓰와는 달리 아이언사이드는 자신이 제압한 적이 아무리 목숨을 구걸할지라도 가차 없이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즐기기 위하여 그들의 시신을 나무에 내걸기까지 하는 잔혹함을 일삼는다.

개러쓰와 아이언사이드의 대조를 통하여 기사란 혈통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사의 자격에 걸 맞는 행동과 태도가 혈통과 합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로리는 보여주고 있다.

III. 사랑과 결혼

여정을 통하여 개러쓰는 당시 사회적 신분은 ‘타고나는 것’(inborn quality)일 뿐 자신의 노력에 의해 ‘바뀔 수 있는 것’(social mobility)이 아니며, 귀족혈통이 ‘귀족다움’을 보장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도덕적 측면에서 개러쓰의 순수함은 그의 형 가웨인이 보여주는 도덕적 타락과는 차별이 되며, 개러쓰의 사랑과 결혼 또한 그를 기사로 만들어준 랜슬롯이 범하게 되는 비도덕적인 간통(adultery)과도 큰 차이가 있다. “개러쓰의 이야기”가 말로리의 『아서왕의 죽음』에서 차지하는 중심적인 위치나 이야기의 내용을 감안할 때, “개러쓰의 이야기”는 벤슨의 주장대로 그 자체로서 완벽한 작품이며 말로리의 가장 성공적인 작품에 해당한다. 벤슨의 이와 같은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개러쓰를 통하여 이상적인 기사도를 구현하려는 말로리의 의도와 더불어 당시 사회적 현실에 들어맞는 사랑과 결혼관이 작품에 잘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개러쓰의 이야기”에는 두 남녀의 정열적인 사랑과 결혼을 전제로 한 이상적인 사랑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개러쓰와 리오네스 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욕망에서 비롯되는 육체적 사랑을 넘어 후자의 사랑 쪽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이다. 이는 말로리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러쓰와 리오네스의 관계를 15세기 후반 귀족들이 바라는 이상적 사랑과 결혼관에 입각하여 말로리는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당시 사랑과 결혼의 관례를 둘 사이 관계에 적용하려는 말로리의 의도는 작품에서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 ‘궁정풍 사랑’(courtly love)의 전통에서도 알 수 있다. 말로리의 작품이 프랑스 로맨스의 전통을 이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러쓰의 이야기” 어디에서도 ‘궁정풍 사랑’의 전통이나 흔적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Lyons 143). 이는 인위적이며,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궁정풍 사랑’의 전통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이며 자연스러운 당시 결혼관에 입각하여 두 연인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말로리의 의도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말로리는 남녀 간의 비밀스러운 혼외정사에 가까운 ‘궁정풍 사랑’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말로리에게 진정한 사랑이란 합법적인 결혼으로 귀착되어야 하며, 단순히 두 남녀의 합의에 의한 욕망의 발산은 랜슬롯과 귀니버어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사람의 관계는 물론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큰 해를 입히는 것으로 말로리는 보고 있다.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어둠 속에서 두 연인이 욕망을 발산하는 것 자체를 말로리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작품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로리는 개러쓰와 리오네스의 관계가 두 사람 사이의 육체적 관계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결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작품에 설정해놓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장치는 작품의 이중적 플롯으로, 이는 말로리의 작품에 영향을 끼친 여타 작품들과 차별이 되는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로맨스는 주인공이 자신이 처음 계획한 여정을 끝마치게 되면 이야기가 이내 종결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개러쓰가 여정을 끝맺은 이후에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곧이어 또 하나의 플롯이 말로리의 작품에는 이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개러쓰가 리오네스를 아이언사이드 경으로부터 구출해낸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러쓰와 리오네스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고, 두 사람이 합법적인 결혼에 이르는 과정이 또 하나의 플롯으로 작품에 들어가 있다. 이외에도,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더해져 있는 토너먼트 역시 말로리만의 독창적인 요소로 두 연인의 성적 욕망의 발산을 저지시키고 지연시켜 캐멀롯의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는 결혼으로 이들의 사랑이 끝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이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말로리가 지향하고 있는 두 남녀의 사랑과 결혼관이 15세기 후반 귀족 사회의 결혼 관례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귀족 계층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장자상속(primogeniture)을 통하여 가문의 혈통(patrilineage)을 계승하는 일이었다(Du Boulay 44). 이와 더불어 그들의 또 다른 관심은 재산을 증식시키고, 자신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보다 확고히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상과 관심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은 가문과 가문을 잇는 결혼에 매우 큰 비중을 두었다(Rawcliffe 170). 실제로 당시 결혼이란 계층과 계층을 엮는 중요한 사회적 관습이었을 뿐만 아니라(Pollard 47), 가문의 혈통을 다음 세대에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에 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두 가문이 결혼을 매개로 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의 “과거

혈통, 정치적 후원, 가세의 확장, 재산의 보전 및 증식 능력”이 중요한 잣대가 된 것 또한 사실이다(Stone 70-1).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앞서 언급했다시피 말로리가 또 하나의 플롯과 토너먼트 장면을 설정해가며 무엇보다 두 연인 사이의 합법적인 결혼과정에 관심과 신경을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특히, 두 사람이 합법적으로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해프닝들은 물론 개러쓰에 대한 리오네스와 리넷의 행동과 태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가문의 혈통을 잇는 수단으로서 결혼을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결혼 상대를 고르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상대방의 사회적 신분임에 틀림이 없다. 마찬가지로 작품에서 리오네스는 자신의 결혼 상대로서 개러쓰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그의 신분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개러쓰와 결혼 약속을 하기 전에 리오네스는 개러쓰의 가문,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재산 정도를 알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러쓰를 수행하는 난장이를 납치하는 일이다. 그녀의 오빠에게 보고하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개러쓰의 사회적 신분과 가문을 확인하게 된다. 개러쓰의 신분과 가문을 확인 한 후, 리오네스가 자신의 결혼상대에 대하여 오빠의 의견을 구하는 것 역시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가족 중 연장자에 해당하는 남성에게 결혼 승낙을 구하는 중세 후기 결혼 관례를 그대로 닮고 있다(Cherewatuk 24). 마음의 확신이 선 리오네스는 개러쓰와 단 둘이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그녀는 “그에게 사랑을 약속하며 그가 살아있는 동안 오직 그를 사랑하겠노라”(she promysed hym hir love, sertainly to love hym and no other [man] [all the] dayes of his lyff)(332)고 맹세하게 된다. 여기에서 그녀가 사용하는 표현은 당시 결혼을 주재하는 사제가 신부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한 신부의 응답과 거의 유사하다(Cherewatuk 24).

개러쓰와 함께 하며 개러쓰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는 리넷은 물론 리오네스와 그녀의 오빠 모두 그의 귀족혈통과 가문을 확인함으로써 리오네스와 개러쓰 사이 결혼의 기본적인 조건은 성립이 된 편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결혼의 조건으로서 당사자 간의 결혼 동의와 확인이 중요시 여겨졌던 초기 교회법과는 달리 가문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겼던 후기 중세시대에 이르러 결혼이란 주위 많은 사람들의 확인과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법적으로 성립이 되었다(Sheehan 548). 주위 사람들의 공식적인 인정 속에서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당시 명망 있는 가문에

서 자식을 출가시킬 때 당사자의 개인적인 감정보다 가문의 입장에서 결혼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은 당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또한 결혼을 사적이며 비밀스러운 행사가 아니라 공적인 행사로 여겼던 15세기 영국 귀족 사회가 지니고 있던 결혼관에 비추어 볼 때, 리오네스와 개러쓰의 결혼은 한쪽 집안의 허락과 인정 속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며 합법적인 결합이 아니라고 보인다.

당시 이와 같은 결혼 관례를 말로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말로리는 개러쓰와 리오네스의 결합이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공식적인 결혼으로 이끌기 위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대한 결혼식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개러쓰의 어머니를 포함하여 캐멀롯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아서 왕은 두 사람 각자에게 상대방을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랑하고 선택하였는지 확인 한 다음, 둘 사이의 공식적이며 엄숙한 결혼이 캔터베리 주교 아래 이루어질 것이라 선포를 하게 된다(360). 여기에서 아서 왕이 사용하고 있는 “매우 성대한 의식”(grete solempnyte)은 개러쓰와 리오네스의 결혼이 당시 교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말해준다. 결국 둘 사이에 서둘러서 이루어진 결혼 맹세가 모든 구성원이 보는 앞에서 아서 왕의 결혼식 선포로 인하여 합법성 내지 적법성을 지니게 되는 셈이다.

개러쓰와 리오네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혈통과 가문이 같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 사랑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합을 이루는 것이 당시 이상적인 결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말로리의 작품에도 암시되고 있듯이 결혼 상대자의 순결이다. 가부장적 체제에서 가문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여성의 순결이다. 로맨스에서 결혼 전 여성의 순결을 위협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근친상간이다. 이러한 근친상간의 예는 초기 로맨스부터 후기 로맨스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근친상간의 위협이나 왜곡된 가부장의 권위 이외에도 가문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당시 귀족이 가장 기피했던 것이 바로 혼전성교이다. 여성의 혼인 전 관계에 의하여 태어난 아이는 절대로 장자 승계의 원칙에 의하여 가문의 혈통을 이을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중세 후기 로맨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아울러 딸의 혼전관계를 통하여 자손을 얻었을 때, 결혼 전까지 여성의 정조를 책임지게 되어 있는 아버지나 아버지를 대신하

는 집안의 가장이 느끼는 수치심과 분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사실 또한 후기 로맨스에 잘 나타나 있다.³ 말로리 역시 개러쓰와 리오네스 사이의 혼전성교와 이로 인한 가문의 수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작품에 삽입시키고 있다.

개러쓰를 수행하던 난장이가 납치되는 사건이 결혼 상대로서 개러쓰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라면, 침실소동은 개러쓰와 리오네스의 혼전성교를 막기 위한 말로리의 의도에서 첨가된 에피소드이다. 개러쓰는 적법하며 이상적인 결혼에 이르기 위하여 세 차례에 걸쳐 이른 바 ‘침실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마지막 두 개의 침실소동이 리오네스의 혼전 순결함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가웨인 경과 녹색의 기사』(*Sir Gawain & the Green Knight*)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침실 테스트’는 개러쓰에게 집중되어 있다. 페르손트 경(*Sir Persaunte*)이 기사로서 개러쓰의 됃됨이에 시험하기 위하여 자신의 딸을 발가벗은 상태로 개러쓰의 침실로 보낸다(314-15). 이런 장면은 가웨인 로맨스의 또 다른 작품인 『가웨인 경과 카를아일의 사내』(*Sir Gawain & the Carle of Carlisle*)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기사가 마땅히 거쳐야 할 일종의 통과 의례와 같다. 가웨인 처럼 개러쓰 역시 페르손트의 딸의 육감적인 유혹을 공손하게 거절함으로써 기사로서 욕망에 대한 절제력은 물론 차후 이상적인 배우자로서 순결을 지키게 된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침실소동에서 리넷은 리오네스의 순결과 개러쓰의 정조는 물론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는 또한 두 사람의 혼전 육체적 결합을 막아냄으로서 두 사람의 합법적인 결혼을 보장하고 이를 통한 가문의 혈통을 보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와 육체적 욕망을 누구보다 꿰뚫어보고 있는 리넷은 개러쓰의 침실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더러 리오네스의 행동을 한마디로 “지나치게 성급하다”(overhasty)고 표현한다. 그런가 하면, 말로리 또한 이 같은 행동은 이들의 나이가 어리고 이들이 순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며, 이들의 열정적인 사랑을 용서하는 모습을 내비치기도 한다(333). 그러나 말로리 역시 리넷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행동이 “조금은 지나치리만큼 성급하다”(lytyll overhasty)고 말한다. “개러쓰가 왕의 자손이며 훌륭한 인품을 지니고 있다”(330)는 사실을 누

³ 이동춘, “중세 후기 로맨스에 나타난 젠트리 계층의 이데올로기: 가족, 결혼, 그리고 신분 계층,” 『영어영문학』 47(1): 161-83.

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리넷은 라이오네스가 단순히 개러쓰의 육체적 욕망의 대상이기보다는 그와 온전히 합법적으로 결혼에 이를 수 있기를 그녀는 바라고 있다(330).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리넷은 개러쓰와 리오네스가 사랑을 나누려는 순간 두 차례에 걸쳐 개러쓰의 침실에 기사를 투입시켜 이들의 정사를 훼방 놓는다. 그런가 하면, 이에 격분한 개러쓰에 의해 목을 베이고 상처를 입은 기사를 『가웨인 경과 녹색의 기사』에 등장하는 녹색의 기사처럼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두 번째의 침실소동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다만 원래대로 온전하게 재생된 기사와는 달리 개러쓰는 피를 흘리며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상처를 입고 침대에 누워 기절한 상태”로 묘사되어 있다(334). 상징이나 아이러니를 작품에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말로리가 피를 흘리고 누워있는 개러쓰의 모습은 상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귀니비어와 랜슬롯의 장면(1130-32)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는 기사로서 개러쓰의 남성다움이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 여성의 육체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그의 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르파지(Catherine LaFarge) 또한 개러쓰의 상처는 너무나 성적으로 왕성한 영웅에 대한 일종의 거세의 위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263-79). 개러쓰가 입은 상처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리오네스의 오빠의 말처럼, 개러쓰처럼 고귀한 기사가 육체적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334). 이런 점에서 개러쓰 역시 완벽할 정도로 결점이 전혀 없는 기사가 아닌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개러쓰의 상처는 육체적으로 왕성한 그의 욕망을 억압시켜 리오네스와의 관계를 좌절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개러쓰의 정조는 물론 라이오네스의 순결을 결혼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를 제공해준다.

마지막 침실 소동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말로리는 두 번째 침실 소동을 묘사할 때와는 달리 개러쓰가 흘린 피(“on-bledynge”/“for bledynge”)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말로리가 여기에서 피는 작품의 중심 용어라 할 수 있는 개러쓰의 혈통이나 가문과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리오네스와의 관계를 방해하기 위해 침입한 기사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개러쓰가 흘린 피는 중세 후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남성의 정액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⁴ 다시 말해서, 개

⁴ Danielle Jacquart and Claude Thomasset, *Sexuality and Medicine in the Middle Ages*, trans. Matthew Adamson (Princeton UP, 1988), 52-60, especially, 54; Joan Cadden,

리쓰의 왕성하고 다소 무모하게 보이는 성적 욕구가 피의 분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리넷이 마법을 이용하여 개러쓰가 피를 흘려 도저히 일어설 수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335)은 개러쓰가 정액을 리오네스의 육체에 주입하여 혼전 그녀의 순결을 더럽히기보다는 그녀를 통하여 순수한 혈통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리넷의 방책으로 풀이될 수 있다. 한마디로 개러쓰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리오네스의 순결은 물론 그녀 가문의 명예가 유지되는 셈이다. 반면 개러쓰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리오네스와 혼전성교를 무산시켜 궁극적으로는 결혼 후 가문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고 계승할 적법한 자손의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이 같은 해석의 가능성은 개러쓰가 자신이 당한 무례함(“*dyspyte*”)에 대하여 불평을 늘어놓자, 이에 대한 리넷의 설명에서 엿볼 수 있다: “나의 모든 행동들은 당신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all that I have done shall be to your worshuyp and to us all)(336).

이런 점에서 리넷은 단순히 성격이 고약하고 배은망덕한 인물이기보다는 작품 속 누구보다 현실적이며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을 지닌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 리오네스를 구출하기 위하여 개러쓰와 함께하는 여정 중에 리넷은 피상적으로 매우 신경질적이며 예의범절을 모르는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역할은 단순하게는 개러쓰가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 역할은 물론 경험이 일천하고 미숙한 주인공에게 가르침과 지혜를 제공하는 로맨스의 전형적인 조력자인 셈이다(Fuller 253-67).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넷은 남다른 혜안과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인물로서 개러쓰와 리오네스 사이의 합법적인 결혼을 이끌어냄으로서 이들이 소속된 공동체에 질서와 안녕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들을 감안할 때, 리넷은 『가웨인 경과 녹색의 기사』에 등장하는 버실락의 부인(Bercilak's wife)이나 『바쓰의 여장부 이야기』에 나오는 추한 노파(Loathly Lady)와도 비교될 수 있는 인물로서 사건의 흐름이나 주위 인물의 행동을 통제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공동체의 결속

지금까지 언급한 사회적 신분이나 합법적인 결혼을 위한 가문과 혈통의 중요성에 관련한 내용에 비하여 가족 구성원 사이의 유대감이나 공동체의 결속에 대한 말로리의 언급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말로리 역시 당시 귀족 사회가 중요시 여겼던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지는 않다. 작품에서 말로리는 개러쓰가 완전한 기사가 되는 최종적인 관문이 캐멀롯의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결혼과 더불어 캐멀롯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가 인정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말로리의 『아서 왕의 죽음』에서 주인공은 어떠한 개인 기사가 아니라 캐멀롯의 원탁의 기사들이라고 메카씨(Terence McCarthy)는 주장하고 있다(169). 이는 각자 개개인 기사의 능력이나 가문보다도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기사들의 우애와 결속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아울러 한 개인 기사가 이룬 업적과 명예는 그 사람의 것이기보다는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의 업적이며 명예라는 사실을 메카씨의 주장을 말해준다.

“Fair Unknown” 부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로맨스에서 개인의 능력이나 명예 보다는 공동체를 중요시 되며, 주인공이 최종적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으로서 이야기가 끝을 맺는 경향이 있다. 개러쓰 역시 작품의 시작 부분에서 캐멀롯 공동체 구성원에게는 이방인으로서 등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케이 경에 의해 부엌데기로 취급되며 개러쓰는 랜슬롯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성원들에 의해 철저하게 소외되며 무시까지 당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개러쓰는 귀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능력과 됴됨이를 통하여 기사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캐멀롯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기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정 동안 개러쓰는 자신이 제압한 기사들에게 캐멀롯으로 가서 아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을 요구하곤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기사로서 인정받기를 원했다면 굳이 자신에게 굴복한 기사들을 캐멀롯까지 개러쓰는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개러쓰에게 캐멀롯의 공동체는 자신이 도달해야 할 최종의 목적지이며, 그곳 구성원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기사로서 그의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그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주변에서 캐멀롯의 원탁의 기사라는 중심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이는 해석될 수도 있다.

이외에도, 공동체의 결속, 구성원의 화합과 조화에 무엇보다 관심을 보이는 이상적인 기사의 모습으로 말로리는 개러쓰를 묘사하고 있다. 개러쓰는 자신이 제압한 기사의 호의를 받아들여 만찬에 참석하곤 하는데, 이는 단순히 기사와 기사 사이의 신뢰와 화해를 바탕으로 한 상대 기사의 호의를 개러쓰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브룩(Havelok)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상대 기사가 만찬을 베풀어 개러쓰와 음식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이미 개러쓰를 기사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리디(Felicity Riddy)의 주장처럼, “15세기 이전이나 이후 실제 삶에서 뿐만 아니라 작품 속에서 만찬이란 공동체의 평화를 애호하는 중요한 행사이며, 귀족적인 삶을 보여주는 행태”이다(75). 개러쓰는 여정 동안에 서서히 귀족(기사)의 공동체 속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의 시작 부분에서 랜슬롯이나 가웨인과 식사를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에 머물 수밖에 없던 개러쓰의 처지(295: 27-31)는 서서히 중심을 향하여 발전하여 리넷과 페르손트 경과의 만찬(314: 26-27)에서 정점에 이르게 된다. 이 시점에서 역시 개러쓰는 타고난 신분에 의해, 그리고 능력과 됴됨이를 통하여 리넷의 인정을 받게 된다. 작품에서 쉽게 눈에 띄는 피(혈통)이나 음식(만찬) 등은 개러쓰의 타고난 사회적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의미와 더불어 그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서 인정받아야 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러쓰의 행동과 태도는 궁극적으로 캐멀롯으로 대표되는 귀족 공동체는 물론 가족 공동체의 화합 및 결속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개러쓰가 캐멀롯에 들어오는 동시에 개러쓰의 어머니 역시 캐멀롯으로 오게 되며, 그곳에서 개러쓰는 또한 형인 가웨인과 상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라는 성스러운 행사를 통하여 독자는 다시 한 번 개러쓰 가족은 물론 캐멀롯 공동체의 결속과 화합이 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개러쓰가 가족의 구심적 역할을 하며 가족 구성원들을 결속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무엇보다 형인 가웨인에게는 복수심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반면 개러쓰는 악을 회피하고 선을 옹호하는 성품으로 가족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받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작품의 마지막에서 가웨인과 랜슬롯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랜슬롯은 개러쓰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으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웨인은 자신의 아우인 개러쓰를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러쓰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그를 찾을 수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아무리 가웨인이 말로리의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손치더라도 가족과 캐멀롯 공동체의 결속을 이루는 인물로서 말로리는 가웨인이거나 랜슬롯을 보고 있지 않다. 기사도의 꽃으로서 개러쓰가 육체적 욕망으로 인하여 캐멀롯을 붕괴시키는데 일조를 하는 랜슬롯이나 복수심에 불타는 가웨인보다는 캐멀롯과 가족 공동체의 결속과 화합을 이끄는 인물로 보다 적절한 것이 틀림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사실은 말로리가 “개러쓰의 이야기”를 『아서 왕의 죽음』 중앙에 위치시키며, 개러쓰를 이상적 기사 역할 모델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알 수 있다.

개러쓰가 기여하고 있는 가족 공동체와 캐멀롯 공동체의 결속과 화합은 사회적 신분 및 결혼 못지않게 당시 사회현상을 반영한 말로리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당시 귀족들의 결혼 관례와 신분의 중요성을 말로리가 개러쓰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듯이, 말로리는 초기 자본주의 시장의 태동과 함께 개인주의가 서서히 강조되기 시작하던 15세기 후반 영국 사회에 과거 공동체의 가치와 소중함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말로리가 살던 15세기 후반은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던 중세와 상대적으로 개인 혹은 개인의 정체성이나 능력을 중시하던 르네상스 시대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시점으로 해닝(Robert Hanning)의 주장처럼 말로리의 작품에는 영웅의 사적인 욕망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이 서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4).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말로리는 개러쓰를 통하여 과거 기사도의 이상과 더불어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향수를 더욱 더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주제어 | 말로리, “개러쓰의 이야기,” 사회적 신분, 결혼, 공동체

인용문헌

이동춘. “중세 후기 로맨스에 나타난 젠트리 계층의 이데올로기: 가족, 결혼, 그리고 신분계층.” 『영어영문학』 47(1): 161-83.

Armstrong, Dorsey. *Gender and the Chivalric Community in Malory's Morte*

- Darthur*. Gainesville: UP of Florida, 2003.
- Arnold, Sanders, "Sir Gareth and the 'Unfair Unknown': Malory's Use of the Gawain Romances." *Arthuriana* 16 (2006): 34-46.
- Benson, Larry D. *Malory's Morte Darthur*. Cambridge: Harvard UP, 1976.
- Cadden, Joan. *Meanings of Sex Difference in the Middle Ages*. Cambridge: Cambridge UP, 1993.
- Cherewatuk, Karen. "Pledging Troth in Malory's 'Tale of Sir Gareth.'"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logy* 101 (2002): 19-40.
- Donaldson, Talbot E. *Chaucer's Poetry: An Anthology for the Modern Reader*. Ed. 2nd Ed. New York: Ronald, 1975.
- Du Boulay, F. R. H. *The Lordship of Canterbury: An Essay on Medieval Society*. London: Nelson, 1966.
- Guerin, Wilfred L. "'The Tale of Sir Gareth': The Chivalric Flowering." *Malory's Originality*. Ed. Robert M. Lumiansky.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64, 99-117.
- Hanks, Thomas. "The Rhetoric of the Folk tale in Sir Thomas Malory's Tale of Sir Gareth." *Arthuriana* 13 (2003): 52-67.
- Hanning, Robert W. *The Individual in Twelfth-Century Romance*. New Haven, Conn.: Yale UP, 1977.
- Harward Jr., Vernon J. *The Dwarfs of Arthurian Romance and Celtic Tradition*. Leiden: Brill, 1958.
- Huber, Emily Rebekah. "'Delyver Me My Dwarff': Gareth's Dwarf and Chivalric Identity." *Arthuriana* 16 (2006): 49-53.
- Hudson, Harriet E. "Construction of Class, Family, and Gender in Some Middle English Popular Romances." *Class and Gender in Early English Literature: Intersections*. Ed. Britton J. Harwood and Gillian R. Overing. Bloomington: Indiana UP, 1994.
- Jacquart, Danielle and Thomasset, Claude. *Sexuality and Medicine in the Middle Ages*, Trans. Matthew Adamson. New Jersey: Princeton UP, 1988, 52-60.
- Jill, Mann. "Malory: Knightly Combat in Le Morte D'Arthur," in *The New Pelican Guide to English Literature*. Vol. 1. Part 1. Harmondsworth: Penguin, 1983, 331-39.
- Kennedy, Beverly. *Knighthood in the Morte Darthur*. 2nd Ed. Cambridge: D. S. Brewer, 1992.
- Knight, Stephen. *Arthurian Literature and Societ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3.

- LaFarge, Catherine, “The Hand of the Huntress: Repetition and Malory’s *Morte Darthur*,” in *New Feminist Discourses*, Ed. Isabel Armstrong. London: Routledge, 1992, 263-79.
- Lyons, Faith Lyons. “Malory’s Tale of Sir Gareth and French Arthurian Tradition” in *The Changing Face of Arthurian Romance*. Ed. Alison Adams et al. Bodydell: Woodbridge, 1986, 137-47.
- Mahoney, Dhira. “Malory’s Tale of Gareth and the Comedy of Class,” in *The Arthurian Yearbook*. Ed. Busby, Keith. New York: Garland, 1991, 165-89.
- McCarthy, Terence. “Le Morte Darthur and Romance,” in *Studies in Medieval English Romances: Some New Approaches*. Ed. Derek Brewer. Woodbridge, Suffolk: Boydell and Brewer, 1988, 148-75.
- Pollard, A. J. “The Richmonshire Community of Gentry during the Wars of the Roses.” *Patronage, Pedigree and Power in Later Medieval England*. Ed. Charles Ross. London: Sutton, Rowman, Littlefield, 1979.
- Propp, Vladimir. *The Morphology of the Folktale*. 2nd Ed. Trans. Laurence Scott, Ed. Louis A. Wagner. Austin and London: U of Texas P, 1968.
- Rawcliffe, Carol. “The Politics of Marriage in Later Medieval England: William Lord Botreaux and the Hungerfords.” *Huntington Library Quarterly* 51 (1988): 161-75.
- Rheingold Fuller, Miriam. “Method in Her Malice: A Reconsideration of Lynet in Malory’s Tale of Sir Gareth.” *Fifteenth-Century Studies* 25 (2000): 253-67.
- Riddy, Felicity. *Sir Thomas Malory*. Leiden: E. J. Brill, 1987.
- Hanning, Robert W. “The Social Significance of Twelfth-Century Chivalric Romance.” *Medievalia et Humanistica* n.s. 3 (1972): 3-29.
- Sheehan, Michael M. “The Formation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Fourteenth Century England: Evidence of an Ely Register.” *Medieval Studies* 33 (1971): 214-229.
- Stone, Lawrenc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New York: Harper, 1977.
- Vinaver, Eugene. *The Works of Sir Thomas Malory*. Ed. 3rd Ed. Rev., by P. J. C. Field. Oxford: Clarendon P, 1990.
- Wittig, Susan. *Stylistic and Narrative Structures in the Middle English Romances*. Austin: U of Texas P, 1978.

ABSTRACT

**Social Meanings of Thomas Malory's *Tale of Gareth*:
Social Status, Love and Marriage, and Community****Dongchoon Lee**

The fourth large division of *Le Morte Darthur*, the *Tale of Gareth* presents the arrival of “the goodlyest yonge man and the fayreste” that the court of Arthur has ever seen. As an independent, self-contained romance, the *Tale of Gareth* is used as the portrayal of Arthur’s Round Table at the height of its power and glory. In addition, Gareth is depicted as an index to the noblest elements of the chivalric ideal. He serves as a standard against which the behaviors of the members of Camelot including Gawain and Lancelot are to be measured. Not only through the chivalric qualities that Gareth shows, but in terms of social class, love, marriage and so on, which the late Medieval society holds about, Malory makes the character of Gareth as ideal. Gareth in the tale never overtly challenges the basic assumptions of social class and marriage that were accepted by the nobility of Malory’s times. Concerning social class and status, Malory shows that nobility is an inborn quality but that it may not automatically guarantee ‘gentyllnesse.’ Moreover, Malory presents married love as an appropriate conclusion to the romance of Gareth. In light of fifteenth-century marriage practice, the Gareth Romance reflects the specific concerns of the noble class regarding marriage. Gareth’s ideal marriage ultimately serves to drive his family as well as the community of Camelot to the state of harmony and cohesion. In order to put an emphasis on social class, love and marriage, the cohesion of community in the tale, Malory employs the stylistic techniques such as the structural and verbal repetition and the incremental process, which are commonly used in the narratives like a popular romance or a folk tale.

Key Words | *The Tale of Gareth*, Chivalry, Social Status, Marriage, Community